‘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노위, 10월 14일
‘기후정의 촉구 행진’ 진행
불교환경연대는 백일기도
염원 모으고 인식 확산도
불교사회연구소 · 환경위
‘불교계실천’ 주제 세미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0월 14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행진에 나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구공동체를 위해 대중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상의 전환을 이끌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향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이기에 더욱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은 10월 14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행진에 나섰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조정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행진은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시경 · 동신 · 여등 스님을 비롯해 발전비정규진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학생기후행동, 농민의 길 등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서 종각역,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을 거쳐 서울역사박물관 입구까지 이어졌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14기후정의행동’에 참석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기후변화의 위기는 단순히 환경 · 생태 문제가 아닌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제”라며 “국민을 기망하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 기업의 그린워싱을 비판하며, 기후정의에 대한 각성과 전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존중사상을 토대로 기후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10월 23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기후위기, 멈추고 돌아보는 100일 기도’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교환경연대 20주년을 맞아 활동가들과 회원, 임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염원을 모아내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주년 기념행사를 연기한 대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법석을 준비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기후문제는 환경문제 만이 아닌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고, 민주적으로 조화롭게 살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불교환경연대를 넘어 불교계 전체로 확대되고 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다지기 위해 100일 기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도는 기후위기를 위한 원력에 함께 하고자 하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100일간 매일 아침 6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화상미팅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각자의 일상 속에서 공동으로 정진할 계획이다.

기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발심을 다지고 실천으로 회향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 5계와 10대실천서원을 합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의 ‘지구와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명상절 108배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108배를 함께 한다. 108배가 어려울 경우 절 대신 사경으로 이어진다. 하루에 1천원이상 보시도 실천한다. 보시금은 불교기후행동기금으로 사용되며 100일 기도 회향일인 22년 1월 30일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조계사 앞에서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과 연대한 가운데 ‘전국 신공항반대 1만명 서명운동’과 불교기후행동에서 주최하는 ‘불교동기후행동 피켓 시위’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일환이다. 02)720-1654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와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는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후변화와 불교실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대응 현황’을,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국제시민사회 및 한국사회 대응 현황’을,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 종교계의 대응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기후위기 극복과 전환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유와 전통’을,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 소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불교의 실천과 전개’ 주제발제에 나선다.

종합토론은 기후변화와 대응, 불교실천과제 등 2개 분야로,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참석을 원할 경우 10월 21일 오후 5시까지 소속, 이름, 연락처를 기재해 전화 또는 문자(010-7144-1794)로 신청하면 된다.

“〈직지〉 본질 알릴 불교계 노력 절실하다”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개인 원력으로 10여 년간
〈직지〉 우리말번역 · 강의
시공 초월한 진리 가르침
불교계 관심 저조 아쉬워



“〈직지심체요절〉은 신심을 고취시키는 종교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삶의 깨달음을 직관적으로 이끌어 줄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가 담겨있어요. 불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기에, 이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원력으로 〈직지〉의 우리말번역서를 출간하고 10여년간 이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해 온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불교계조차 〈직지〉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진리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덕산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청화 스님의 상좌다. 수행에 매진하던 중 우연히 〈직지〉를 만났고 선적 언어로 표현된 진리의 깊이에 매료됐다. 깨달음을 증득한 선지식들의 문답 속에는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르침이 가득했다.

“〈직지〉는 깨달음에 대한 禪의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다만 선문답 속에서 드러나는 선적인 표현들을 대중적으로 쉽게 표현해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덕산 스님은 2010년부터 직지를 2010년 〈직지심경 강의(클리어마인드)〉를 발간했다. 〈직지〉에 대한 대중강의서로는 처음이다. 스님은 책 출간을 시작으로 대중들을 위한 〈직지〉 강의를 시작했다. 세계 最古 금속활자로만 알려진 까닭에, 〈직지〉에 대한 관심도 적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대중들에게 이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직지〉는 선불교의 정수를 담아낸 책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간략한 내용에 백운화상이 과거 7불과 인도 28조사, 중국 110선사의 방대한 게 · 송 · 찬 · 가 · 명 · 서 · 법어 · 문답 등을 추려 담았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언어에 담긴 선의 요체 중에서도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선적인 표현의 대중화였다. 깊이를 담아내면서도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이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스님이 〈돈오의 길 직지심경(담앤북스)〉을 발간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계에 그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영문판도 출간했다.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 〈직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로도 풀이가 쉽지 않은 내용을 영어로 담아내는 작업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덕산 스님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직지〉의 내용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사상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대중들에게 전해진다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훨씬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주시에도 수차례 〈직지〉의 내용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종교색을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직지〉는 불교를 넘어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기에 불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통한 확산을 이끈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템플 · 사찰음식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문화사업단 · 외교부, 10월 13일 업무협약 체결

국제기구 · 주한공관 등에
템플스테이 등 적극 홍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과 외교부(장관 정의용)가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문화사업단은 외교부와 10월 13일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인 원행 스님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홍보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원행 스님은 “외교부와의 업무협약으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더욱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드라마, 영화, K-POP 등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 인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이 증명됐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사업단과 외교부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불교문화 콘텐츠를 통한 국내외 공공외교 활성화에 협력을 추진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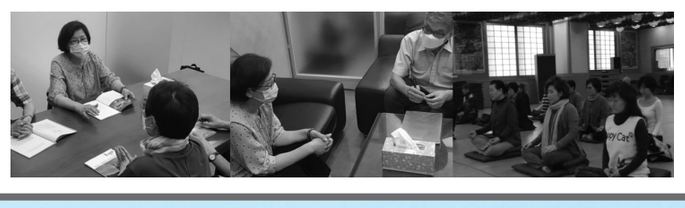
대한불교진흥원이 펼치는 현대적 불교 진흥 사업

1975년 설립 이래 시대상황에 맞는 불교진흥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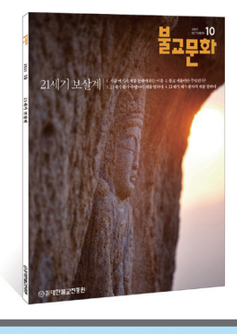
현대인을 위한 뉴미디어 포교
유튜브 헬로붓다TV
#법문 #불교인문학 #신행 #명상 #자연 #경전 #교리 #불교문화



불자 인재양성과 불교적 가치 실현
(평생교육기관) 대원아카데미
디지털대원아카데미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불교 #심리상담 #명상 #자격고시 #온라인 강의 #심리상담사
주 3일 수업, 총 15주, 학기당 20/30만원, 6과목(학점은행제 과목 포함)
www.daewonacademy.org, www.digitaldaewon.org



불교정신 구현과 인문적 사고의 확장
월간 불교문화
#불교 #경전 #심리 #명상 #생태 #생명 과학 #수행 #문화 #유식
buddhismmagazine.blogspot.com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02-719-1855